

日보험업계 재편 막바지 급류

지난 7월 손해보험요율이 자유화되면서 불어 불기 시작한 일본 보험업계의 지각변동이 최종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지난 9월 이후 합종연횡의 급물살을 타 온 일본 보험업계가 11월 2일 야스다(安田)화재해상보험·닛산(日産)화재·다이세이(大成)화재의 합병 발표를 기점으로 3대 보험그룹이 주도하는 시장 재편구도의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 손해보험 3사는 오는 2002월 4월을 목표로 한 경영통합에 합의, 3자간 합병이 성사될 경우 도쿄(東京)해상연합에 이어 일본 2위 규모가 된다.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은 11월 2일 보도했다.

현재 업계 2위인 야스다화재가 최근 들어 업계에 몰아닥친 통합 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승부수를 둔 것이다. 닛산·다이세이도 단독 생존에 어려움을 느끼고 손을 잡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업계 1위인 도쿄해상은 이미 지난 9월중 아사히(朝日)생보·니치도(日動)해상과 경영통합을 전제로 한 보험그룹을 결성하기로 최종 합의, 업계 최강의 위상을 확보한 상태다. 생보와 손보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이들의 통합 결정은 '보험 종합화'시대의 막을 활짝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내년 10월중 합병할 예정인 대형 손보사인 미쓰이(三井)해상과 스미토모(主友)해상은 니혼(日本)생보와의 제휴에 이어 이날 스미토모생

보와도 경영통합을 염두에 둔 전면 제휴에 나서기로 결정, 보험업계의 3각 구도의 한 획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업계 3,4위인 미쓰이와 스미토모해상의 합병 결정은 야스다·닛산·다이세이가 통합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주축이 된 금융그룹과도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어, 은행과 보험을 망라한 종합금융그룹 형성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통합 합의에 도달한 야스다·닛산·다이세이의 경우 니혼코교(日本興業)·다이이치강교(第一勸業)·후지(富士)은행 합병으로 탄생한 미즈호파이낸셜그룹과 연계돼 있으며,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계열에 속한 상태다.

최근의 보험업계 합병 및 제휴 움직임은 은행들의 재편 구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각각 추진되는 통합 움직임이 금융 종합화의 노선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니혼게이지는 분석했다.

한편 지난 9월 이후 진전된 보험업계의 재편은 대부분의 경우 손보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의 보험업계 재편은 생보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달 지요다 교에이 등 중견 생보업체의 파산이 이어진 가운데 생존을 위한 짝짓기에서 남겨진 생보사들이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2000.11.3)

잠자는 보험금 ‘클릭’으로 쉽게 찾는다

휴면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는 연내에 인터넷상에 공동으로 휴면보험센터를 개설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11월 7일 밝혔다.

가입자들은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를 방문, 실명을 제시하면 찾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각 보험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휴면계좌 자료에 대해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한 후 계약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취하지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돼 오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현재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에 잠겨 있는 휴면보험금은 1천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한국경제신문(2000.11.8)

소규모 금융기관 임직원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내년 1월부터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1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나 예금대지급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과실·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보험사들이 우선 포괄적으로 보상케하고 보험사는 과실 또는 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실제 대상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운영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배상에 문제가 없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우량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2000.11.15)

「제27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하여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소방공무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화재예방 및 진압과 구조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우수 소방관을 표창하는 「제27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이날 시상식에서는 서울 영등포소방서의 정찬택 소방장이 대상을 수상, 상패와 부상으로 3백만원 을 받았고, 서울소방본부의 김대식 소방장 등 분상 수상자 16명은 각각 상패와 부상 2백만원씩을 받았으며, 수상자 17명 모두는 1계급씩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본 소방안전봉사상은 지난 1974년 우리 협회가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지원을 받아 제정하여, 화재 및 각종 재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소방관을 선발, 표창하는 제도로써 2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까지의 수상자는 모두 322명에 이른다. ☺